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정연욱
인쇄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 전화 (961) 0095, (963) 5849
FAX (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 교환 대표전화(745)5702
(0331) -(8)-0101~0140

제957호 〈주간〉 1990년 5월 28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교심위 강의평가제 도입

무기명 설문조사방법으로 신설 교양 교과목에 대해

양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오는 28일부터 6월2일까지 교양과목 일부에 대한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

교심위는 '이전의 강의가 대부분 형식, 내용면에서 학생에게 피교육자로서 수동적으로 주입된 것'이었으나 강의평가제를 통해 "대학의 일주체인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발현하고, 강의내용의 발전과 학생들의 지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과목 학생에게 검증받고 확인받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무기명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될 강의평가제의 방법은 △교수법 및 교강사의 자질 △강의내용 △학습분위기(학생들의 학습방법 등 수강자들 평가)등으로 정해졌다. 또 교심위는 수업시간전에 평가내용 및 기준을 교강사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설정하게 되며, 신설된 교과목의 경우 '개설목적과 강의내용이 적절한가'하는 문제를 평가한다.

이번 강의평가제는 민족통일론 등 10여개 과목에 우선 실시되고, 이후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해 전과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영빈(신방·4) 교심위장은 "미국에서는 강의평가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개방적인 학문풍토에서 연구한 교수님이라면 교권침해 또는 다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수·학생 상호의 학문발전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 교수님들의 이해와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교심위의 경우, 20여개 학과에서 각과 교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수원캠퍼스는 계속되는 교심위 활동과 전공과목개편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단대, 과교심위원 발굴등 조직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1차에 16명 합격

이경혜(회계·3)양은 최연소자로

제24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이경혜(정경대·회계3)양 등 본교 재학생 및 동문 16명이 합격했다.

지난 5월24일에 있었던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이경혜양은 최연소합격자로 밝혀졌으며 2차시험은 오는 7월13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재동(정경대·경영 87) ▲김재수(경제 85) ▲김창호(정경대·회계 83) ▲김철용(정경대·경영 81) ▲노동욱(정경대·회계 85) ▲문철수(정경대·회계 85) ▲박승찬(정경대·회계 87) ▲송제현(정경대·경영 87) ▲엄상섭(정경대·경영 86) ▲유기은(정경대·회계 84) ▲이경혜(정경대·회계 88) ▲이병복(정경대·회계 86) ▲황보길(정경대·무역 85) ▲강영우(사회대·경영 83) ▲김헌(사회대·무역 87) ▲윤권화(사회대·경영 87)

학생자치기구 감사 실시

수원대의원회서 30일까지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각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5월까지 예산감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지난23일 각기구에 공문을 보낸바 있는 대의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각 자치기구의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서 등의 자료를 수집, 종합하여 감사하게 된다.

또한 예산감사가 끝난후 각 기구집행부와 함께 질의응답식으로 감사결과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교 박성호감사 위촉

사립대학설립심사위에

고황재단 박성호감사(78년 대학원 경제학박사·전국사립대 공인회계사 감사회 회장)가 지난 5월 1일 사립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립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을 설립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해 허가조건의 분석평과 타당성을 전문가로 하여금 공정하게 사전 심사하여 부실대학 설립을 예방하는 심사기구이다.

'경영대분리' 해결대안에 접근

정경대 3개학과, 오늘 총회서 입장 결정

'경영대분리' 문제에 대한 정경대 경영학과 학생측 대표와 학교측 부총장이 지난 25일, 26일 두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현실적인 해결대안에 접근하는 등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2일간 부총장실 등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경대학 경영학과는 '경영대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서면약속등 확답을 받아낼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측과 잠정적으로 논의된 대안에 대한 경영, 무역, 회계 3개 학과가 오늘 각각 과총회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서울, 수원캠퍼스의 양쪽의 불만요인을 줄일 수 있는 차원이면 학교당국도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밝혀 경영대분리에 대한 수용자세를 보였다.

한편, 공영일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수원캠퍼스 경영학과 등 3개학과도 일방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직능간 마찰로 내부진통

임금체계의 견해 달라 해결전망 불투명

본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임금교섭과 관련, 각 직능간에 의견차가 노정되어 내부진통을 겪고있다.

노조는 "신설된 행정수당을 고의로 높이 책정해 사무직원을 현혹케 한 점, 상급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정률인상은 그대로 두고 정액인상만 낮춘점 등은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올해 1월에 있었던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연구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호봉체계를 변경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무직 임금과 호봉체계에 대한 개선에 비중을 두었을 뿐이며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고사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밝히고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볼때 학사행정의 중요성에 비해 사무직이 그동안 임금부분에서 소외되어왔던 점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캠퍼스 일부 사무직원과 수원캠퍼스 대부분의 사무·기술직원은 각각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고, 성명서, 유인물 등을 통해 '노조의 비민주성과 조합원 징계, 임금구조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측대표와 노조측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가진 비공식회합에서 학교재원의 부족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차는 좁혔으나, 서로다른 근거에서 출발한 임금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가 달라 직능간의 갈등의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졸업사진 추가촬영일정 발표

서울은 4·5일, 수원은 28·29일

수원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는 오는 28, 29일 단체졸업사진을 촬영하지않은 학과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실시한다.

이번 단체사진촬영은 과전체사진과 그룹별 사진을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찍을수 있으며 과별 촬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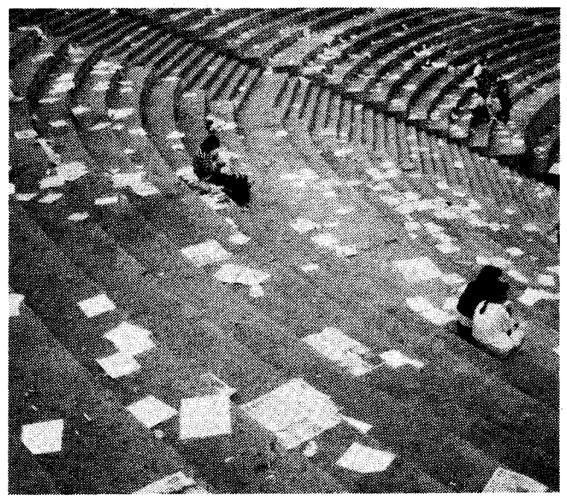
△농학과: 28일 12시 △전자공학과: 28일 1시 △섬유공학과: 28일 2시 △토목공학과: 28일 2시반 △태권도학과: 29일 11시 △영문학과: 29일 12시 △불문학과: 29일 오후 1시.

또한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는 교수 및 각학과 졸업생중 미촬영자, 재촬영자를 위한 2차 졸업사진촬영을 오는 6월4, 5일 이틀간 실시한다. 〈장소는 추후결정〉

한편 양캠퍼스 모두 복학생을 위한 3차촬영은 2학기에 있을 예정이며, 2차기간동안 개인사진을 촬영하지않은 학생은 논현동에 소재한 '포토하우스'(앨범제작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해야한다.

캠퍼스 표정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양심의 파편이



경희가족한마당이 끝난뒤의 노천극장에는 휴지조각 한마당이 펼쳐지고, 우리의 의식뒤엔 행동의 뒷자리가 그림자처럼 남는다.

대동놀이의 장소로 떠난후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양심의 파편이 흩어져도 무심한 시선만 허공에 머물러 있다.

〈김유선記者〉

축구부 전국춘계대학 연맹전 결승진출

농구부는 전국종별선수권대회서 준우승

본교축구부는 지난25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춘계대학축구 연맹전' 준결승전에서 중앙대에 3:1로 역전승함으로써 동아대와 패권을 다투게 됐다.

중앙대와의 준결승전에서 본교축구부는 경기 개시 5분만에 중거리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5분 중앙대의으 자살골로 동점을 이룬 뒤 후반 27분 김인완의 발리슛으로 역전 시키고 후반 39분 중앙대 GK가 나온 사이 이석경이 한골을 추가했다.

이로써 본교는 지난 66, 72, 76년 우승에 이어 14년만에 통산 네번째 패권을 바라보게 됐는데, 결승전은 오늘 오후 3시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다.

한편 본교 농구부는 23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대학부 결승전에서 연세대에 92대73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전날 패자결승전에서 고려대와 힘겨운 경기를 펼치며 체력이 소모된 본교농구부는 결국 이날 경기에서 초반의 큰점수차를 만회하는데 실패했다.

이대회에서 본교 센터 이창수는 우수선수상을, 최부영감독은 지도상을 수상했다.

전대협 제4기 힘찬 출범

지난 19일, 전남대서 4만여명 참가

'광주항쟁 10주기계승 청년학생전국대회 및 제4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출범식'이 지난 19일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송규봉(국문·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전국 각지에서 4만명의 전대협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8시 출범식선포를 시작으로 풍물패공연과 내빈및 각 지구대협 의장단 소개가 있었다.

송갑석(전남대 총학생회장) 전대협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자 광주학살의 실질주범은 미국이며 그의 하수인인 민자당을 분쇄하기 전에는 민중의 자유와 생존권보장은 있을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반민자당 투쟁과 내각제 개헌분쇄투쟁에 전대협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후 투쟁에서 백만학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校是塔

무용지물 도서신청, 무관심과 무성의의 결과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은 4층의 견고한 석조건물이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동상을 앞에두고, 각 열람실, 교수협의회, 출판국이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으며, 맨 윗층의 박물관 또한 도서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곳이다. 이중 1층 대출계의 한쪽 언저리, 잘 눈이 가지않는 곳에 '희망도서구입 신청용지'가 있다. 하루평균 2천여명이 드나드는 곳, 그러나 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1주일에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본교의 1년 도서구입 예산은 약 2억 8천만원, 그중 절반이 잡지, 정기간행물 구입에 쓰이고, 나머지는 사서과 수서계에서 각종 신길서적을 직접 구입하거나, 학생들이 신청한 도서를 구비한다. 그러나 희망도서신청제도가 학생의 주머니 사정과 지적호기심을 위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청서를 이용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므로 제도자체가 거의 무용지물 상태이다. 게다가 극소수의 이용자 대부분이 대학원생이며, 신입생들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관리자와 이용학생 양측의 무관심 무성의가 맞물려있다. "얼핏 신청하면 구입해준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방법도 잘 모르고 귀찮아서요." 이렇듯 신청제도 자체에 대한 학생의 무관심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제도를 관리하는 도서관측의 무성의도 결코 간과할수 없다. 눈에 띄지 않는곳에 손바닥만한 용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홍보, 이러한 상태에서 활발한 이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도서구입희망신청제도가 생긴지는 약10여년이 흘렀고, 요즘도 분명 존속·유지되고있는 제도이다. 도서관을 풍부하게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은 우리모두의 권리이고 책임이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않다고해서 무작정 책방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단지 주머니 사정을 넘어서 우리의 허술한 권리의식을 뒤돌아보게 한다. 또한 '관심있는 사람만 찾을수 밖에 없다'는 식의 일처리는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다. 권리는 스스로 쌓는것이며, 관리자는 원밀한 '권리쌓기'를 위해 최대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1990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각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대 학 원

전화 967-6937
961-0123

1. 모집과정 및 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반아어학과 *사학과 *법률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철학과 회계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상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임상약학과 간호학과 유전과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산업공학과 *농학과 *임학과 *식품가공학과 *조경학과 원예학과 *환경보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요업공예학과
(*표는 박사과정설치학과)

2.원서교부 :1990.5.28(월)-6.1(금)
3. 원서접수 :1990.5.28(월)-6.1(금)
4. 시험일시 및 장소 :1990.6. 16(토) 10: 00(본대학원)
5. 시험과목:
1)석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2)박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제2외국어 (영문, 사학, 지리, 한의학과에 한함)
TOEFL시험성적 550점 이상취득자는 영어시험면제 (석사, 박사과정) (최근 2년이내 성적)

경영대학원(남·녀야간)

전화 962-9688
961-0127.0128

1.모집학과및 과정: 석사, 연구 및 경영자과정
경영학과(인사관리, 마아케팅, 생산관리,회계학, 재무관리 각 전공)
세무관리과(세무관리,세무행정,조세정책,조세법학,각 전공)
노사인력관리학과(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인간관계,노사관계,노동경제, 노동정책 각 전공)
관광경영학과(관광자원개발,호텔경영,호텔회계,사업경영,관광홍보 각 전공)
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산업안전관리 각전공)
무역경영학과 (무역경영, 무역정책,국제경제 각 전공)
2.원서교부및접수:1990년 6월11일(월)~6월20일(수)오후4시까지
3.시험일시및장소: 1990년 6월23일(토) 오후 2시(본 대학원)
4 시험과목:
(1)석사과정(영어·면접·경력) (2)연구 및 경영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특전:
(1)각종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2)수석합격자와 각학과 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교육대학원 일반제 계절제

전화 964-6674
961-0134-6

1. 모집과정 및 학과
1)교육학석사과정
가. 일반제 모집전공
교육행정, 국민윤리교육,국어교육,영어교육 일반사회교육,역사교육,지리교육,물리교육,화학교육, 생물교육,공업교육, 전자계산교육, 요업공예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나. 계절제모집전공
교육행정, 국어교육,영어교육,수학교육,일반사회교육,역사교육, 지리교육,화학교육, 생물교육,공업교육,전자계산교육,농업교육,음악교육,미술교육,체육교육.
2)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2. 원서교부 및 접수:1990.6.8-6.18(월) 16:00
3. 시험일시 및 장소:1990.6.23(토)10: 00(본 대학원)
4. 시험과목
1)석사과정:전공.면접
2)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1)현직 교직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현직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2)본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단, 동일한 전공분야이어야함)
(3)교육학 석사과정 이수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 대학교의 해외자매교에 유학 추천을 받을 수 있음.
(4)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는 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1급 또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단,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상이한 전공 이수자는 제외됨.

행정대학원(야간)

전화 962-1213
961-0131

1.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연구과정
1)행정학과:정책학, 행정관리, 안보정책, 간호행정,병원행정
2)도시및지역정책학과:도시및지역계획,지방행정,환경행정,토지및주택정책
3)사법행정학과; 사법행정
4)사회복지및 보험행정학과; 사회복지,보험행정
나. 행정관리자 과정
다. 지방의회지도자과정
2. 원서 교부 및 접수:1990년6월11일(월)-1990년6월20일(수)
3. 시험일시 및 장소:1990년 6월23일(토) 14:00본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행정일반이론 및 각전공 기초분야),면접
나. 연구과정, 행정관리자과정 및 지방의회지도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현역군인, 국가공무원, 각종 고시 1차합격자, 간호사,본대학교 동문은 수업료의 20%장학금으로 지급

평화복지 대학원

전화233-2992, 234-0228, (8346)65-76211~8

1.모집학과 및 전공(석사과정,2년 6개월,약간명)
평화,안보학과,동북아학과,정책학과,국제경영학과,사회복지학과
2.입학자격: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예정자로서 최종학력 2년간평균 B학점 이상 취득자
3.전형방법:(1)영어시험 및 논문(국문) 단,88.1.1이후의 TOEFL성적이 580점이상인 자는 영어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2)1차면접-(1)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2차면접 및 체력검사-(2)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장학제도:(1)재학중 학비전액 장학금을 지급함.(2)기숙사(삼정서헌)숙식에 필요한 숙식장학금을 지급함.
5.주지사항:(1)본 대학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함, (2)강의는 영어로 함, (3)교수진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4)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행정학,경영학석사학위를 수여함,(5)전인적 인격도야를 위하여 입학후 4학기간 월히 삼정서헌에서 생활하여야 함.
6.원서 교부·접수:(1)기간-1990.6.11~6.19.(2)장소-본 대학원(경기도 광릉)
7.전형기간 및 장소:(1)시험기간-1990,6.22~6.27.(2)장소-본 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야간)

1.모집학과 및 인원 (약간명).
·석사과정:경영정보. 지역개발행정. 기계공. 전자공. 전자계산. 계측제어.정보통신. 식품가공.
2.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1(월)-6.25(월) 17시.
3.시험일시 및 장소.
1990. 6. 30(토)14시.본대학원.
4.시험과목:논문(상식). 전공. 면접.
5.특전.
동문 및 직업군인, 공무원은 전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6.본대학원 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번지.
(02)745-5702,5889. (1331)8-0101 (교2130.2131).

신문방송대학원(야간)

전화 961-0560~1,967-7083

1.모집과정및 인원:
석사과정00명 언론연구과정약간명
2.모집학과:
(1)신문방송학과:
가.신문전공
나.방송전공
다.출판잡지전공
(2)광고학과: P·R광고전공
3.원서교부및접수
1990년6월1일~6월20일(수)
4.원서교부및 접수장소
본대학원(체육대학관5층)
5. 시험일시및 장소
1990년6월23일 (토)오후2시 본대학원 (체육대학관내)
6.시험과목
(1)석사과정:영어·전공·면접
(2)언론연구과정:서류전형및면접
7.언론연구과정
(1)고졸이상자
(2)수업기간1년
8.대학교재학생으로서 언론계에 진출할 희망자는 언론연구과정에 응시가 능함.